더 거칠어진 민주·한나라 '입'

한나라 "길거리 정치굿판 당장 치워라"

민주당 "대리투표 확실 … CCTV 공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 후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악법 5적'을 선정, 표적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이날도 민주당의 '국회 폭력'과 뒤이어진 '거리투쟁' 방식을 비난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날 민생탐방 차원에서 충북 청주·음성을 방문했던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충북을 민심 속에서 헤엄치다 왔다"며 "길거리에서 정치 굿판을 당장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울리라는 게 국민의 소리였다"고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며 "우리가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한다 하니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으며, 강경파를 원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장외투쟁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내지 조직적인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야당에 '국회 폭력 근절 및 민주적 표결 존중을 위한 국회선진화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투표방해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대리투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화면(CCTV) 녹화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회 사무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무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행위가 사생활이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공식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투쟁에도 가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박재승 전 변협회장이 포함된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헌재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나경원 의원 등 미디어법 처리를 주도한 여당 의원들을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인 미디어법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이날은 경기도 성남 단대오거리에서 언론악법원천무효 거리홍보행사를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치국회' 풀릴 기미 없네

한 "8월 국회 열자" 긴급 제안 … 민주 "꼼수 쓰지 마라" 거부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예고되고 한나라당이 30일 야당에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간 장외 대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회로 야당을 끌어들여 논쟁하는 것이 현 정국을 돌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8월 국회를 열기 위한 제안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 여야 대결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 당론인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 고수 방침과 법이 개정돼야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천18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 내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설치와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지난 6월30일 3당 간사 협의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고 증액하겠다는 제안보다 훨씬 후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

김재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재래시장을 방문,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30일 경기도 성남 단대오거리에서 열린 언론악법원천무효 거리홍보행사에서 '언론악법무효' 선전피켓 앞을 지나가고 있다.

민생 Vs 장외

민주 주요 당직자 일괄사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 전원이 지난 29일 정세균 대표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30일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정 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새롭게 2기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2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에 따르면 이미경 사무총장은 전날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홍보미디어위원장, 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의 사표를 모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조만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 뒤 후속 인사를 단행, 2기 체제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 前대통령 추모사업회 9월 25일께 공식 발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회가 9월 중 공식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를 준비 중인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모기념사업회는 8월11일 첫 회의를 하고 9월25일쯤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정책전문대학원인 케네디 스쿨과 같은 공공정책대학원 성격의 '노무현 스쿨'을 만들 계획"이라며 "공공정책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의원 전남지사 출마 '민심노크'

"미디어법 투쟁" … 시·군 순회 여론 탐색

주승용(여수을·사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31일부터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여론 탐색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이 이날부터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벌이는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은 출마 결정을 위한 '민심 노크'도 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지사 후보로 언급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그동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시·군 방문도 조심할 정도로 소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말해 도지사 출마 설로 그동안 운신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그는 "31일 완도를 시작으로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과 민심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며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등으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축제 현장과 해수욕장 등을 돌며 홍보 활동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당헌·당규에 여론조사를 포함한 시민참여 경선이 원칙이다"면서 "다만 현직과 신인이 공천경쟁을 할 경우 현직이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여론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1차로 30~40%를 탈락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은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전남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전남 경제 초토화가 우려된다"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호남 SOC 예산이 깎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故 박세직 영결식 추모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린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영결예배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초월한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이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지금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 참으로 애통하다"며 "고인이 못다 이룬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명복을 빌었다.

전경련 회장 맹비난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30일 "재벌과 대기업의 수장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한국 정치와 노조에 대한 천박하고 봉건적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조회장은 지난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 '강성노조만이 온 나라의 주인인 양 판치고 있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